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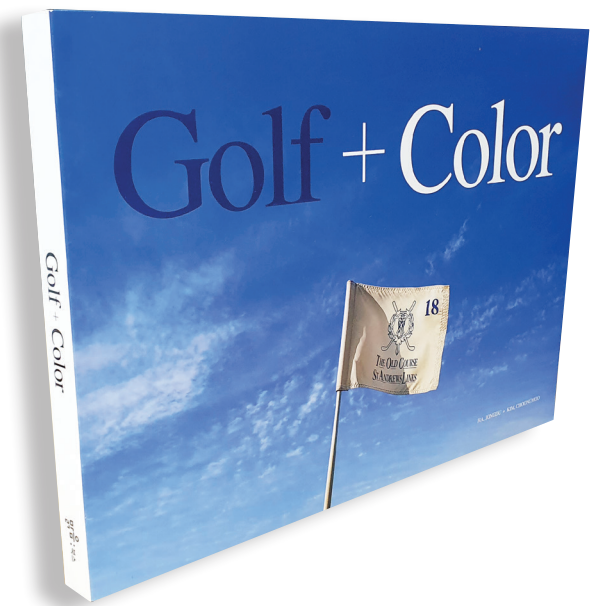
회제의골프신간 ①

골프 장르의 새로운 개척 '골프장과 칼라' 새 지평을 열다

도서출판 '맑음북스'에서 골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의 흥미로운 골프 전문 서적이 출간돼 화제다.

골프설계가 하중두와 사진작가 김충무가 만나 자기만의 세계를 골프라는 소재를 통해 컬러배레이션을 통해 표현해 낸 내용이 흥미롭다. 먼저 하중두 코스디자이너는 대한민국의 골프코스 에 대한 리노베이션이 필요한 이유에 서부터 리노베이션을 위해 알아야 할 골프장의 특징을 잘 다루고 있다. 특히 ASGCA(미국골프코스설계자협회)에서 발간한 서적을 통해 공개된 분야별 리노베이션 사례가 잘 정리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골프라고 하면 일반 서적 은 많이 출간되어 왔지만 사진작가의 칼라의 시선에서 접근한 것은 처음이 어서 이목을 끈다.

총 22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 양한 칼라와 표현으로 골프장을 렌즈 에 담아내고 있어 신선한 충격으로까 지 받아 들여 진다. 사진작가 김충무 실 장은 태국, 베트남, 일본, 중국, 광, 사이판, 멕시 코, 프랑스, 스코틀랜드 등을 돌며 골프코스과 자연의 변화를 생생하게 담아냈다. 책 속의 다양한 코스와 골프장에 대해 친절한 설명을 생략했다. 골프장의 절제미와 상상력을 독자에게 제공하 고자 하는 의미 부여이다.



골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그리고 골프의 색(色)을 통한 골프장 리노베이션

려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무엇보다도 세인트앤드류스 올드 코스의 사진은 매우 강 렬하다. 표지 역시 세인트앤드류스 플래그를 담 았는데 이 역시 인상적이다.

골프 설계 이론과 해외 명문 코스 사진으로 구성해 읽기도 편하고 시각 적으로도 잘 어울린다. 책 제목부터 '골프+컬러' 로 이 책의 정체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골프장의 리노베이션 이유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이 담겨 있 다. 아울러 사진을 통 해 그 아름다움과 종 국에 골프장은 시각적



인 자기만의 컬러를 가져야 함을 김충무 사진작 가가 잘 표현해 주고 있다. 골프라고 컬러가 만났 기에 지루하지 않고 아름다움을 극대화 시켰다. 읽는 재미와 골프라고 대한 새로운 장르도 열었다. 읽는 책에서 보는 책의 시발점이 되었다. 뿐만아 니라 김충무 작가의 골프장을 그려내려는 컬러 에 대한 고뇌와 연출을 엿볼 수 있는 골프전문 서적이다. '골프+컬러'는 일반 서적과 인터넷에 서 만나 볼 수 있으며 가격은 8만원이다.

이미 책을 받아 본 많은 골프전문가들은 "골프 글도 중요하지만 사진으로 표현되는 이번 서적은 충격으로 다가온다"면서 "절제되고 자연 그대로를 담으려는 노력을 통해 진정한 골프 장의 실사를 표현한 우수한 책이라"고 덧붙였다. 맑음 북스는 구름과 약간의 어둠을 강하게 표현 했다. 우리 일상의 골프장 풍경은 정리된 깔끔한 풍경이 대부분이지만 다소 거칠게 표현한 김충 무 작가의 골프장 풍경이 '골프+컬러' 서적을 살

이중현 기자 huskylee12@naver.com

회제의골프신간 ②

골프엔 김대중 대표 '캐디학 개론' 신간 펴내

캐디와 그 역할은 무엇이고 골프장과는 어떤 관계인가

캐디 교육 전문 업체 골프엔 김대중 대표이 사가 '캐디학 개론' 신간을 펴냈다.

이번 신간은 캐디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이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냉철 하게 집필한 책이다.

김대중 대표는 건대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과 일본 국립 츠크바대학 경영정책과를 거쳐 홍익대와 카톨릭관동대학교 강사를 거친 인재 다. 특히 골프라고 있어 캐디와 관련된 경영과 교육 그리고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 골프엔 회 사를 설립해 운영중이다. 김 대표는 이번 캐디 학 개론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도 잘못된 캐 디관련 다양한 인식을 바로 잡으려는 의지의 일환으로 집필하게 됐음을 밝혔다.

'캐디의 역사', '캐디가 하는 일', '캐디가 되는 방법', '캐디의 미래'로 구분해 책을 만들었다. 특히 캐디의 미래 에서는 캐디의 존재와 고용 보험 시행의 실제적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3권의 부활과 법률 개정에 따른 고용의 변화, 캐디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 해 눈길을 끈다.

김대중 대표는 "최근 골프장업계 최고의 관 심사는 캐디의 고용보험가입 의무화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를 바라보는 복잡다단 한 일 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골프장업계에서

'캐디의 위치와 존재가치가 있는가'에 관한 의 문점을 풀어보려 노력했다"고 했다.

이 책에서는 캐디는 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골프장 운영자에게 속하지도 않으며, 골프 장 이용자(골퍼)와 법률적 관계에 있지 않다.



때문에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도, 보호받을 수도 없는 존재이다.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최근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던, 직장 내 괴롭힘 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런 법적 처벌이 따라오지 않는 캐디 자살 사건과 라운드 중에 골퍼의 타구 사고로 인한 캐디 상해사건,

골퍼의 캐디 성희롱 사건 등의 모든 사건들은 그 중심에 지금까지 내려온 캐디에 관한 무관 심과 무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번 캐디학 개론 은 캐디의 역할 뿐만 아니라 권리와 의무에 대 해서도 깊이 있게 그려내고 있다.

또한 '캐디학 개론' 중간에 나오는 마디 룬 (Mardi Lunn)의 케이스가 선택에 따라 골퍼와 캐디가 된 적절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1999년 미LPGA 투어에서 박세리가 연장전에서 승리했을 때, 연장 승부를 같이 했던 골퍼였 다. 2006년 은퇴 후 리사 홀(Lisa Hall)의 캐디 가 된 것으로 더 유명세를 탔다. 이외에도 '캐 디학 개론'에서는 캐디 기원부터 역사를 되짚 으며 현재에 이르기 까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캐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이 책은 캐디와 골퍼, 골프장이 함께 있어야 할 필독서이다.

캐디학 개론은 근본적으로 캐디 스스로에게 존재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으며, 동시 에 캐디가 갖추어야 할 스킬에 대한 구체적인 면서 상세한 설명까지 제시한다. 골프장업계에 캐디의 존재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향후 나 아갈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

본지(레저신문)와 조세금융신문에 연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1, 2, 3, 4부로 나누어서 만들 었으며 가격은 3만원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tfmedia.co.kr에서 확인 가능하 다.

임동호 기자 dh5190@naver.com

SBS골프 무노스 2박3일 골프여행 신규 런칭

고창+선운+석정힐 38만5000원부터 파인힐스, JNJ상품도 함께



SBS골프 부킹 서비스 를 운영하고 있는 무노 스가 코로나19 시대에 릴렉스 할 수 있는 2박3 일 골프여행 상품을 신 구 런칭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해외 골프여행 이 완전히 막히면서, 국내 골프여행을 찾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단순히 라 운드를 즐기는 기존의 골프라고 이용 패턴을 벗어나, 골프라고 여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골프여행 수요가 급증한 것이 다. 이러한 추세 속에 1박 2일 여행의 아쉬움을 달래 줄 2박3일 골프여행상품 신규 런칭을 통해 다양한 여행과 골프라고 다녀 올수 있도 록 무노스가 준비했다. 먼저 전라 지역의 2박3일 상품은 가격과 효 율성을 동시에 잡았다. 전북 고창 지역의 골

프장으로 구성된 고창+GC선운+석정힐을 1 인당 385,000원부터 만나 볼 수 있다. 출발 일 정은 5월 10일부터 매주 월요일~수요일 출발 가능하다. 또한 사항으로 총 3일간 54홀의 라 운드 그린피, 2일과 3일차 클럽하우스 조식, 1 일과 2일차 숙박이 제공된다.

뿐만 아니라 2박3일 파인힐스, 2박3일 JNJ 상품도 함께 판매 중이어서 다양성을 제고했 다. 오픈과 동시에 예약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서둘러 예약해야만 원하는 날짜에 다녀올 수 있다.

이번 무노스 여행상품은 특히 2박 3일짜리 가 호응이 좋아 제주 지역 상품도 곧 내놓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나머지 지역 골프라고 여 행상품도 함께 선보일 전망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골프라고피아 공식 앱이 나 홈페이지(www.golftopi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중현 기자 huskylee12@naver.com

'레저신문 창간 31주년' 1990 - 2021
레저신문 www.golftimes.co.kr
구독 (02)3275-1091

자주식 그린 모어의 새로운 전설이 탄생하다.

TORO GREENSMASER 1000 SERIES

TORO Greensmaster 1000 시리즈

그린마스터 1000 시리즈 자주식 그린모어 소개

Toro의 새로운 고성능 헤드 자주식 그린 모어 제품군은 사용자와 그린 모어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작업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고안되어 제작되었습니다. 업계 최초의 길이 조절식 텔레스코핑 핸들과 여러 가지 혁신 기술이 결합되어 모든 그린에서 탁월한 작업 품질과 일관성 있게 경기 할 수 있는 조건을 구현합니다. 또한 독특한 모듈식 설계가 적용된 새로운 Greensmaster 1000 시리즈 모어는 간소화되고 편리해진 유지관리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해줍니다.

Greensmaster 1018 Greensmaster 1021 Greensmaster 1026

소유 비용 절감

특히 출원중인 다수의 시간 및 인력 절감 기술과 유지관리 작업이 적은 모듈형 설계가 결합된 새로운 Greensmaster 1000 시리즈 모어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탁월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 검증된 DPA 커팅 유닛 - 분리 가능!**
 - 수명이 길고 효율적인 EdgeSeries™ 밀.
 - 교체 시간이 시간 단위로 단축.
- 내구성이 우수한 기어 구동 트랜스미션**
 - 동급 트랜스미션 중 최상의 기대 수명을 제공
- 모듈식 설계**
 - 간편하고 신속한 정비 및 수리
 - 엔진, 트랜스미션, 드럼, 커팅 유닛 등의 분리/교체가 용이
- 온보드 백래핑 옵션**
 - 그린 모어를 동시에 백래핑
 - 추가 모터나 벤치 톨 불필요
- "스윙-엑셀" 그린에서 티 모어로 전환**
 - 그린에서 티 모어로 신속하게 전환

세계적인 수준의 커팅 성능

그린을 걸어 보면, 다른 어떤 모어도 작업자의 차이를 더 효과적으로 보완하여 골프장의 한 그린이나 모든 그린에서 동일하게 우수한 커팅 품질과 일관적인 작업 결과를 구현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길이 조절식 핸들**
 - 작업자의 키에 맞게 조절 가능
 - 5개 위치로 조절 가능
- 핸들 방진 마운트**
 - 보폭으로 인한 예고 변화를 방지
- 직관적, 정확성 및 접근 용이성의 제어 장치**
 - 단순한 조작
 - 커팅 성능 및 일관성 향상
- 이중 기능 베일**
 - 안전성과 작업 효율성을 모두 갖춘
- 맞춤형 커팅 및 작업 후 기관**
 - 8, 11, 14 블레이드 릴 옵션
 - 현장에서 고-저 클림 빈도 조정
 - 표준 또는 인터레이스드 그루밍 옵션

TORO

(주)비래산업: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유현사로241번길 63-58 | T: 032-236-0114
(주)투우그린: 본사 - 충남 천안시 목천읍 종합휴양지로 132 | T: 041-551-9427
남부지사 - 경남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1180 | T: 055-761-9427